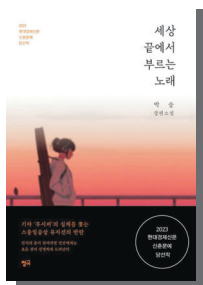


# “원하는 삶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길”



세상 끝에서 부르는 노래  
박석 지음  
청어

“전남매일 신춘문에 수상 이후 자신감을 얻어 좋은 글을 쓰고 있어요. 이번 책은 꿈을 꾸는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단편소설 ‘굿바이, 라 메탈’로 2021 전남매일신춘문에 당선됐던 박석씨(박해경)가 신작 소설 ‘세상 끝에서 부르는 노래’를 출간했다.

2023 현대경제신문 신춘문에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이번 소설은 전설적인 명품 기타 ‘루시퍼’를 매개로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젊은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밴드 그룹 ‘비파비(Vis ta Vie)’를 결성하며 작품을 종결하는 결말 또한 새롭다. ‘비파비’는 우리말로도 된가 색다른 의미를 생성하고 있지만, 프랑스어로는 ‘네 인생을 살라라’는 뜻이다.

전남매일 신춘문에 당선자 박석  
신간 ‘세상 끝에서 부르는 노래’  
기타 매개로 만드는 삶의 길 조명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틀을 벗어나 자신들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조금은 불안하고 불안정하나 ‘젊음’이라는 위치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살인과 폭력이라는 부조리한 현상을 서사구조로 이어가지만, 완벽한 문장과 아름다운 문체로 이 음울한 기운을 흡수한 점이 돋보인다.

전설의 기타 ‘루시퍼’를 향한 그릇된 욕망이 젊은 시절의 주인공을 비극의 길로 이끌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로 마주한 현재의 ‘루시퍼’는 인생을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

그를 세상 끝으로 내몬 것은 ‘전설의 기타’를 향한 그릇된 욕망이었고, 세상 끝에 내몰린 그가 새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것도 ‘전설의 기타’에서 얻은 위안이다.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시련에 가슴 졸이게 하면서도 기성세대의 부조리한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진정한 언어를 되찾으려는 주인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작가는 이번 수상작의 기반이 된 영감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기타와 드럼을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낡은 물건을 파는 곳에서 특이한 통기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데 기타를 진열해 뒀던 주인의 심리가 궁금했어요. 더구나 기타를 탐내는 손님이(나를 비롯해) 많았음에도, 절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상황이 희한했는데 거기서부터 소설의 발상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을 워낙 좋아했기에 언젠가 꼭 음악과 관련된 작품을 써보고 싶었는데, 특이한 기타를 만난 이후 떠오른 발상을 묵혀 두었다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래 묵혀뒀던 발상은 여러 번의 퇴고 과정을 거쳐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세상에 나오게 됐다. 책에 함축된 ‘네 인생을 살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작가가 일궈온 꿈과 닮았다. 제조·물류업 분야에 종사했던 작가는 끊임없이 글을 썼고 다방면의 신춘문에 문을 두드렸다. 낙방이라는 쓴맛을 봤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난 2021년 전남매일 신춘문에 문도 두드렸다. 그리고 전남매일 신춘문에 당선된 후 좋은 변화가 생겼다. 각종 공모전에서



박석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KBS라디오 문학관에 소설이 소개되는 등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인내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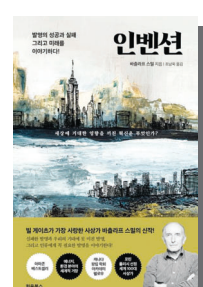
“전남매일 수상 전, 오랜 시간 최종심에서 번번이 탈락하면서 글 쓰기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상 후 자존감이 많이 회복돼 자신감 있는 태도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 이후 소설집을 출간했고 그 소설집을 통해 북토크를 진행했으며, 몇몇 지면에 작품도 발표했어요. 또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석 작가는 이번 신간을 읽은 독자들에게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독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당길 소망하며 습작기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께는 꿈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시라 당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놓지 않고 창작을 이어간다면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꼭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나라 기자

## 세책 나왔어요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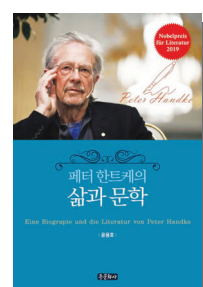
◇인구소멸과 로컬리즘=정부는 지난 20년간 인구 대책에 380조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인구소멸은 수도권보다는 지방, 특히 농산어촌에서 크게 나타난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는 모든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문제라고 지적한다. 라의는.



◇인벤션=캐나다 매니토바대 환경지리학과 명예교수인 바츨라프 스미일이 발명의 역사를 돌아본다. 예컨대 발명 초기에 환영받았던 유엔휘발유는 신장독성 중금속 배출로 많은 국가가 사용을 금지했다. 프레온가스는 성층권에 오존층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돼 전 세계가 점진적인 감축에 합의했다. 핵분열 기술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모든 전력 생산 기법을 압도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이에 한참 못 미쳤다. 저지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발명으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질소고정 작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핵융합 등을 꼽았다. 처음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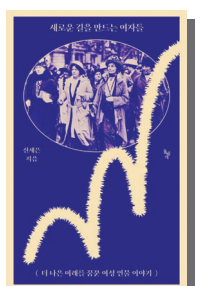


◇아치올의 리듬=작가 박완서(1931~2011)의 노란집이 있던 아치올. 박완서가 타게 하기 직전까지 집필하던 이곳에서 딸 호원숙 작가가 아치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에세이로 담아냈다. 헤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정감찬 글들이다. 아치올에 사는 새와 나무와 구름이 펼쳐내는 리듬처럼 저자가 잔잔한 일상에서 길어 올린 생각들이 조용하게 펼쳐진다. 딸 이바라본 엄마 박완서의 모습이 정겹다. 마음의 숲.



◇페터 한트케의 삶과 문학=2019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트케의 삶과 문학세계를 살핀 책이다. 저자는 한트케 전문가인 고려대 윤영호 명예교수. 그는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유학해 한트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꾸준히 한트케의 작품을 번역해 국내에 소개하고 한트케의 문학 세계를 연구해왔다. 이 책은 1995년 초판이 나온 책의 증보판으로, 한트케의 유명한 작품인 ‘소망 없는 불행’ 등 4편에 대한 해설과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생애와 작품에 대한 연보 등을 추가했다. 종문화사.

##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 도전했던 여성들



새로운 길을 만드는 여자들  
신세은 지음  
둘베게

“여자들이여! 우리의 권리를 깨닫습니다! 여자가 남자처럼 단두대에 설 수 있다면, 그와 함께 연단에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성이 사회적 발언권을 얻기 어려웠던 시절, 용기를 내 이렇게 주장한 시민운동가 올랭프 드 구주(1748~1793)는 연단에 오를 기회를 끝내 얻지 못하고 대혁명 중인 1793년 프랑스의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여자들’은 올랭프 드 구주처럼 사회적 굴레를 벗어나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 도전했던 여성 10명을 조명했다.

## 일제 강점기 강주룡 소개도

저자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은 인물 중 하나로 프리다 칼로(1907~1954)를 꼽았다.

그는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중첩된 약자의 지위로 살았으며 생전에는 프리다보다는 민중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프리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 디에고의 외도, 유산, 건강 문제 등으로 좌절, 분노, 고통이 뒤범벅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몸소 겪은 삶의 모순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역압받는 여성의 몸과 이에 대한 저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멕시코를 조명한 그림은 시간이 갈수록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 저자는 일제 강점기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울밑대 지붕에서 고공 투쟁을 벌인 평양고무공장 여공 강주룡(1901~1931)의 스토리도 소개한다. /연합뉴스

## 삶에 대한 응송깊은 통찰 담긴 시 55편



모두가 첫날처럼  
김용택 지음  
문학동네

“당신에게도 이 바람이 손에 닿겠지요 /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다음 토요일 / 만나면 당신 손이 내 손을 잡으며 / 이 바람이 그 바람 맞네요, 하며 / 날 보고 웃겠지요”(김용택 시 ‘쓸 만하다고 생각해서 쓴 연애편지’ 중)

‘섬진강 시인’ 김용택(75)이 새 시집 ‘모두가 첫날처럼’을 내놨다. 전작 ‘나비가 숨은 어린나무’ 이후 2년 만에 펴내는 이번 시집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쓸 만하다고 생각해서 쓴 연애편지’라고 한다. 창문을 열어 놓고 방에 누운 화자는 손등을

## ‘섬진강 시인’ 열네 번째 시집

스치는 바람에 “이 바람이 지금 봄바람 맞지요? 라고 / 문자를 보낼 사람이 생겨서 좋습니다”라고 읊는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평화로운 산촌의 오후, 봄소식을 담아 문자를 보낼 사람이 내게도 있다는 애뜻함과 설렘이 정갈한 시어를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온다.

김용택의 14번째 시집인 ‘모두가 첫날처럼’에는 어느새 고회를 훌쩍 넘긴 시인의 삶에 대한, 삶에 대한 한층 응송깊은 통찰이 담긴 시 55편이 담겼다.

김용택은 “이 시집에 실린 모든 시의 제목을 ‘모두가 첫날처럼’이라 해도 그리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이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첫날’을, 그것도 ‘우리 모두의 첫날’을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 알뜰한 정보!

#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